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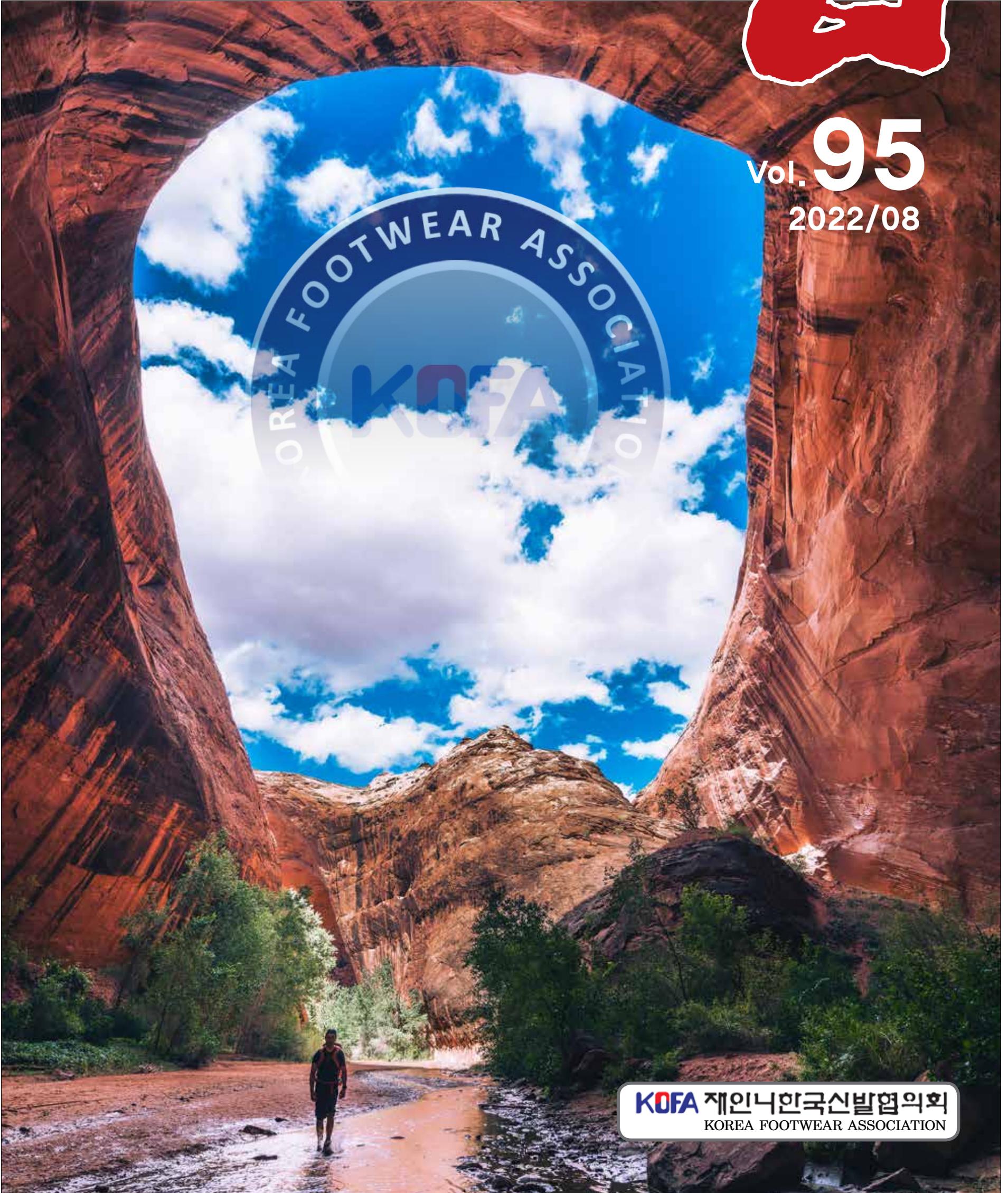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KOFA) 상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만에 열린 첫 행사

MONTHLY **KOFA**

코파의

잡지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95**
2022/08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KOFA) 상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만에 열린 첫 행사



지난 15일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회장:이종윤)는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만에 첫 공식행사인 2022년 상반기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년도 감사보고와 2022년 사업계획을 논의했고 코로나로 인해 움추렸던 시간들을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찬 분위기로 이어졌다. 오랜만에 열리는 KOFA 공식 행사에서는 송창근 명예회장을 비롯해 홍춘식 수석부회장

등 많은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의미있고 화기애애한 행사로 열렸다. 한편 이종윤 회장은 코로나시기에 운명을 달리하신 회원사 대표도 계시지만 어려움과 위협속에서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신 회원사에 감사를 표했으며 송창근 명예회장은 최근 다소 어려워져가고있는 국제경제속에서 당분간 또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KOFA 회원사들은 잘 이겨낼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 KOFA는 범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인행사를 향후 코로나 상황을 보고 올 연말 3년만에 개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공감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는 2022년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가르는 새로운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본다

KOFA 사무국

인니 국세청, 인구식별번호(NIK)로 납세자 식별번호(NPWP) 사용 공식화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주민번호(NIK)를 공식적으로 납세자식별번호(NPWP)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는 세금납부와 관련 서비스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19일 리뿌단6에 따르면 수리우 우도모 국세청장은 7월 14일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 두 가지 세무 간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납부 확인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증인이나 세무자의 대리인이 직접 국세청에 와서 납부 확인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 납부증명을 거래 당사자나 토지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는 세무행정 간편화의 일환으로 주민번호인 NIK을 납세자 식별번호인 NPWP로 통합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인



▲국세청이 발표한 NIK-NPWP 통합에 대한 인포그래픽(국세청 소셜미디어 캡처)

도네시아인들에게는 외워야 하는 신분증이나 증명서 번호가 많은데 곧잘 잊곤 하는 NPWP 번호를 NIK 번호로 대체하는 셈이다.(관련 기사) NIK을 NPWP로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행정시스템을 가진 여타 정부기관 및 단체들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1,900만 개 NIK이 통합됐고 앞으로 더 많은 NIK 번호들이 NPWP로 새로이 등재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1,900만 명의 납세자들은 당장 해당 NIK을 NPWP로 사용해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네일만드린 누르 서비스홍보국장은 NIK을 NPWP로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NIK 보유자들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NIK이 활성화된 사람들만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우선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비과세소득(PTKP) 이상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뿌단6/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 2022년 최저임금 457만 루피아로 최종 결정



▲2017년 11월 10일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주의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이 최종 4,573,845

루피아로 결정됐다. 자카르타주 행정법원(PTUN)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2022년 자카르타 최저임금(UMP)을 4,573,845루피아로 정하도록 했다고 폼빠스닷컴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정한 '2022년 자카르타 최저임금에 관한 주지사 결정

2021년 지방 최저임금법 제 1517조'에서 정한 최저임금 4,641,854루피아에 대해 자카르타경영자협회(Apindo)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소해 자카르타 주 행정법원이 12일 승인한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 4,573,845루피아는 2021년 11월 15일자 자카르타주 노동자/노동조합 임금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카르타 최저임금이 4,651,864 루피아에서 최종 4,573,845루피아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중부자바로 1,813,011 루피아다.

[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 도착



▲조코위 인니 대통령 방한...”尹정부 아세안외교 신호탄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7일 1박2일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조코위 대통령과 부인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는 이날 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3년 만이다.

인도네시아에 부는 K-금융 열풍...현지 언론도 주목

인도네시아에서 ‘K-금융’ 열풍이 거세다. 국내 금융사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현지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CNBC인도네시아는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을 지배하는 한국 기업의 행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금융사를 계속 인수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진출해 메인 플레이어가 됐다” 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미래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금융사들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며 “케이팝 국가의 금융사들이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부문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여신금융사 등 다

양한 업종의 금융사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에 나서고 있다. CNBC인도네시아가 소개한 대표적인 금융사가 한화생명과 우리카드, KB증권이다.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종합보험사인 리포보험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이 회사 지분 62.6%를 인수할 계획이다. KB증권은 앞서 올해 초 인도네시아 증권사인 밸버리증권의 지분 65%를 550억원에 인수하며 이미 현지에 진출했다. 밸버리증권은 2000년 설립한 증권사로 전국 18개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 CNBC인도네시아는 이외에 기존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사로 △KDB산업은행 △OK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BK기업은행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지주 △NH금융지주 등을 거론했다.

국제사회 존재감 키우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중재외교

비동맹 외교전통 앞세워 개도국 입장 대변 오는 10월 G20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일본 자위대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이 겪는 식량위기를 내세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를 추진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최근 행보다. 조코위 대통령의 폭넓은 중재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구와 자원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가진 잠

재력과 냉전시대 ‘비동맹’ 외교 전통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다자화된 질서’ 를 내세우는 중국·러시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을 추진하는 일본에서 모두 환영받으며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중재외교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다. 2014년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



▲27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 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위해 도쿄의 일본 총리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유치, 전기차 등 신산업 육성, 여러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 전역을 잇는 교통망 강화 등 경제문제에 전착해 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

세가 불안정해지고 팜유 수출 중단으로 자국에도 불뚱이 튀면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가 가진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는 조코위 대통령의 중재 외교를 뒷받침하는 무기이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7000만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니켈, 코발트, 망간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며 니켈 생산량은 세계 1위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무역분쟁으로 호주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중국의 제1 석탄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비동맹·중립 노선을 외교정책의 전통으로 가졌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강점이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항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패권에 맞서는 결의”란 표현을 사용하며, 인도네시아가 과거 비동맹 노선으로 제3세계 식민지 독립에 기여한 역사를 언급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 10월 말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단을 호소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원자재 말고 제품으로 팔아라” ...인니 정책에 제조업 투자 급증

상반기 제조업 투자 20조원 넘어...1년 전보다 38% ↑ “외국인투자 급증...다운스트림 집중 전략 적중”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한 아이오닉5에 서명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이 지난 3월 16일 인도네시아 브카시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 준공식에서 아이오닉5에 서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수를 치는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 인도네시아법인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자재를 채굴, 수출하는 산업에서 벗어나 원자재를 제품으로 생산해 수출하도록 산업 전략을 바꾸면서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가 230조8천억 루피아(약 20조2천억원)로 1년 전보다 약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투자 증가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년 전보다 31.8% 증가했고 2분기에는 39.7% 늘어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상반기 165조6천억 루피아(약 14조5천억원)를 기록, 전체 제조업 투자의 약 72%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외국인은 우선 비철금속·금속재·비기계·장비업종에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57억달러(약 7조5천억원)를 투자했고, 화학·제약업종에도 18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투자해 투자액을 8.1% 늘렸다. 이처럼 제조업 투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정부의 일명 다운스트림(하방 산업) 집중 전략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원자재 수출 강국인 인도네시아는 몇 년 전부터 외국 자본이 원자재를 채굴해 바로 수출하지 않고 대신 채굴한 원자재를 제품 형태로 가공해 수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석탄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포스코는 제철소에 이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열연공장을 건설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각각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 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자바섬 외에도 여러 지역에

서 소규모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책 방향과 일

치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원자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외에도 녹색산업 발전과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이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만들겠다는 국가 로드맵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니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세계 혜택도 연장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몇의 코로나19 관련 세계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기업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72개 업종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건설서비스 등 157개 업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별도의 규정 즉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수입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등을 기반으로 한 보건 분야에 대한 세계 혜택도 포함된다. 이 모든 세계 혜택은 당초 올 상반기 이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6개월 더 연장됐다. 네일말드린 노어(Neilmaldrin Noor) 국세청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회복을 지원하고 대응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환자가 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거의 5,000건의 일일신규확진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두 달 전의 174명의 신규 확진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편 기업들은 2년간의 팬데믹 관련 활동 제한 이후 숨통을 틔운 직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원자재 공급 차질로 또 다른 충격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장기업협회(Indonesian Publicly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EI)의 회계 및 조세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아지브 함다

니(Ajib Hamdani) 부장은 2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이 연장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지브는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세계 혜택 연장은 최소한 몇몇 산업과 부문에 숨통을 틔워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팬데믹의 확산과 세계 혜택 연장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조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디 위디아 프라따마(Siddhi Widya Pratama)는 기업들이 이번 연장을 높이 평가해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기 회복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디 위원장은 혼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식량과 기초 상품의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에 세계 혜택, 특히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와 신차에 대한 사치세금 인하는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재정정책처(BKF) 처장은 지난 6월 14일 의회 예산위원회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만약 경제 성장이 5%로 돌아왔다면, 더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이미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중유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I.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p>	<p>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p>	
<p>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p>		

PT. YUSUNG JAYA ABADI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원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2. 광고 상품안내**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로 올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등 여러 나라의 경제전망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팬데믹의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견디는 데 있어 다른 나라보다 나은 모습을 보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1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인도네시아가 1년 동안 5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는 몇 가지 전망과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4퍼센트 약간 넘는 인플레이션을 유지한 것을 가르키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국제 금융기구가 올해 인도네시아는 매우 건전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도네시아가 경기 침체 직전에 있다는 예측을 일축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발리에서 열린 제3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후 자카르타에 도착했고, 17일 자카르타의 사리나 백화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세계 경제 혼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칭찬했다.

발리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암울한 경제 전망 속에 시작됐다.

스리랑카는 국민들을 위한 음식과 연료를 살 돈이 바닥나는 경제 위기로 접어들었고, 일련의 시위로 인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은 국외로 탈출하여 사임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2년에 두 차례 세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게오르기예바 총재에 따르면 2주 후에 다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잠

세계 경제 불황 속에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디르만 상업지구(SCBD) 전경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고로 1월에는 4.4%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4월에는 3.6%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5.4% 성장해 소비자물가가 3.3%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가 경제적 충격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개혁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대유행 기간 동안 중 2021년에 3.69%로 성장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 5.01%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또 6월 주요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0.61%, 전년 대비 4.35%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75bp 인상한 이후에

도 6월 정책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분석가들로부터 지나치게 비둘기파적(dovish)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무부는 또 저소득·중산층이 사용하는 전기와 연료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어 중산층과 상류층의 연료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모든 칭찬에도 불구하고, 게오르기예바는 인도네시아에 잠재적인 제3의 충격을 팬데믹과 전쟁 이후 부채 위기라고 경고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채무 위기의 세 번째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의 경제학자 압둘 마넵 플룽안(Abdul Manap Purlungan)은 인도네시아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 여전

히 회의적이다.

그는 건전한 성장이란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한계는 5.2%여야 하는데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 외에도 정부는 경제의 토대로서 무역 가능한 상품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국영 만다리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파이살 라흐만(Faisal Rachman)은 정부의 에너지와 연료 보조금 지급 결정이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인도네시아의 부채도 주로 루피아로 재정적자는 여전히 재정 통합과 일치하여 신중한 재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위기를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인도네시아 경찰 공조로 기업 사기 피해금 26억원 환수 인니 사기조직, 거래처 사칭해 79억 빼돌려...피의자 4명 현지 검거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전자우편 무역 사기 조직이 국내 기업을 속여 빼앗은 피해금 26억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내 한 중소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한 인도네시아 사기조직은 해킹한 계정을 이용해 거래처를 사칭하며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피해 기업에 전송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홍콩 은행 계좌로 각 66억원과 13



억원, 총 79억원을 빼돌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조 요청을 접수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피해금 동결과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

양국의 공조 수사 결과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에서 26억원, 8월 홍콩에서 13억원을 우선 동결할 수 있었다.

공조 수사는 지난해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피해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도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식 피해금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 경찰을 초청했고, 현지를 방문한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공조에 장기간 협력해준 인도네시아 경찰 측에 사의를 표했다.

양국 경찰은 향후 유사 범죄 발생 시 동결 및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도 협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할 경우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노린 해외거점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은 거래 계좌 변경 시 거래처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틈스 목금형(틈스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인니 차량등록증(STNK) 2년 간 갱신하지 않으면 차량 기록 말소



▲자카르타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STNK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앞으로는 차량소유주가 2년간 자동체제를 내지 않고 STNK를 갱신하지 않으면 삼삿(자동차등록서비스 기관)에서 차량기록을 자동 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 제정된 지 꽤 오래된 도로교통 및 차량에 관한 2009년 기본법 22호 74조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STNK 말소는 차량소유주의 요구에 의하거나 차량 등록기관인 경찰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삼삿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자사 라하르자(Jasa Raharja) 측은 국민들이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자사 라하르자의 홍보담당 뵤지는 STNK가 죽은 후 2년이 지나면 관련 내역들을 말소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차량세 징수를 보다 활성화해 주정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직은 홍보 및 의견청취 단

계지만 기본적으로 2년 간 연장하지 않은 STNK의 관련 내역을 말소하는 것이 해당 정책의 골자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거나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만큼 차량세(PKB) 징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차량세를 내지 않고 있는 차량들은 전국적으로 4,000만 대로 전체 차량의 39%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100조 루피아(약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중에 수많은 무적차량들이 돌아다닌다는 의미이며 차량세도 내지 않는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했을 리 없다. 자동차세 징세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삼삿의 고유 권한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의 시행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책홍보 활동을 마치는 시점에서 삼삿 감독위원회가 소집되어 해당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뵤지는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히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실제 운전하면서 STNK를

경찰에게 보여주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STNK 연장을 게을리하는 실질적 이유이므로 차량기록 말소를 빌미로 위협하기보다는 주유할 때마다 유효기간이 남은 STNK를 제시하도록 하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 빠르타미나에서 보조금 연료 주입 자격을 확인하는 마이 빠르타미나(MyPer-tamina)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STNK 유효기간을 입력하지는 않지만 STNK 사진을 첨부하므로 삼삿이 정말 자동차세 징수를 제고를 원한다면 빠르타미나나 각 주유소들과 업무연계 하여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세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 빠르타미나 프로그램은 조만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CNN인도네시아/ 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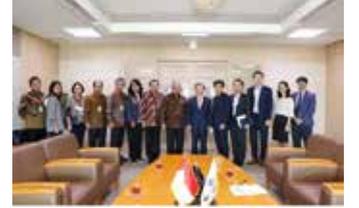
국토부 1차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면담 “수도이전 협력”

하디물로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1월 신수도법을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3월 신수도청 신설, 6월 부지 정지 및 도로를 비롯한 기초 인프라 공사 발주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수도이전 및 개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이 사업 초기부터 협력해 오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차관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등 선도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5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여섯번째)이 정부세종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방한 중인 바수끼 하디물로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오른쪽 일곱번째)을 만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차관은 또 “2003년부터 ‘한-인니 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도로 분야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수끼 장관은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 및 지원 덕분에 신수도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원해 달라”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코트라, 인도네시아서 LED 가로등 포함 스마트시티 제품 설명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중소기업 3곳과 지능형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시스템, 스마트전구, 소형전기차 고속 충전 스마트폴 등 스마트시티 제품 설명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지역 30여곳의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달·프로젝트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설명: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제품 설명회

코트라는 “인도네시아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350만개의 가로등을 LED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우리 기업의 스마트

LED 기술을 적용한 가로등 7천400여개가 30만km 거리에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으로는 약 680만 달러 규모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부자바 투자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연기된 인도네시아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골프? MZ는 이젠 테니스!... F&F · 힐라홀딩스 기대 ↑

골프 산업을 키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관심이 테니스로 번지고 있다. 테니스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골프처럼 고급운동 느낌이 있고, 도심이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데다 체중감량 등 운동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테니스 전문의류가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트렌디한 패션으로 분류돼 젊은 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테니스의 경우 골프만큼 전문 브랜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점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테니스 시장 규모는 50여 만명,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올해 각각 60만명,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 섹터 대장주인 F&F는 이탈리아 기반의 미국 테니스웨어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의 주식을 100% 취득한다고 밝혔다.

인수 가격은 약 827억원이며 취득 시기는 이달 20일이다.

F&F 측은 "골프 등 프리미엄 스포츠 라이프가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테니스 역시 수요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대비해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F&F는 이번 인수로 중국에 집중된 해외수요를 미국·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르지오 타키니는 유럽 비중이 높은데다 작년에는 북미에서 90% 이상 고성장을 했다"며 "향후 중국 외에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모태가 테니스인 힐라홀딩스는 150년 전통의 워블던 대회와 인연이 깊다.

1970~1980년대 해당 대회에서 5

연속 우승 신화를 쓴 비온 보그(스웨덴)를 후원하며 스포츠 마케팅의 효시를 열었고, 이달 마무리된 올해 대회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공식 후원한 글로벌 선수 23명 중 1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힐라는 내년까지 전체 의류 가운데 테니스웨어의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2017년 선풍적 인기를 끈 '어글리슈츠(디스럽터2)'에 고착돼 다소 대중화한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릴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5개년 전략 등을 통해 브랜

드 가치 제고가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지가 밸류에이션 향상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힐라는 국내 브랜드 리뉴얼 5년 만인 지난 2월 글로벌 5개년 전략 계획인 '위닝투게더'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골프웨어 브랜드인 '제이린드버그'의 테니스웨어 컬렉션을 출시했고, 자회사인 신세계트롬보이도 '트롬보이 스포츠클럽' 라인을 통해 테니스 의류 제품을 선보였다.

코오롱인더의 패션부문인 코오롱 FnC는 올해 캐주얼 브랜드 럭키마르쉐를 통해 '럭키르매치', 여성 캐주얼 럭키슈에프를 통해 '럭키데스포츠' 등 테니스의류 라인을 잇따라 발표하며 흐름에 올라탔다. [헤럴드경제]

주인니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한류의 어제와 오늘' 행사 열어



주인니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이 개원 11주년을 맞아 7월23일(토) 자카르타 시내 행사장에서 '인도네시아 한류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행사와 2022년 K-pop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한류의 어제와 오늘' 행사는 2011년 7월 18일 개원한 주인니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고, 케이팝 최초로 뮤직비디오 조취수 40억을 돌파하면서 케이팝 신드롬을 일으킨 '강남스타일'의 작품성을 재조명하면서, 진화를 거듭해온 케이팝 한류의 홍보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 예선전을 거친 '케이팝 커버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패러디', '강남스타일 한국어 말하기대회'의 전국 각지 결승 진출자들이 참여해 케이팝에 대한 열정을 선보였다.

2022년 케이팝 아카데미 수료식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케이팝 초급과 중급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를 통해 약 7주간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다.

김용운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11주년을 곧 여러분들과 응원이 함께하여 더 빛났다"며, "앞으로 더욱 내실있고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월드코리아신문

고가의 지속 가능한 풋웨어, 소비자 지갑 열지 못해



▲콜 한의 최초 지속 가능한 풋웨어, 제너레이션 제로그랜드 II는 민들레 소재 폼을 제작했다.

사람들은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제품에 거금을 들여야 하는 경우 관심이 식는 경향이 있다. 23개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딜로이트 소비자 현황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12개국 이상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했다고 보고한 소비자 백분율은 2021년 9월 대비 감소했다.

최소한 개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입했다고 보고한 사람 중 3분의 1은 대체 제품에 비해 지속 가능한 제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소비자 가격 인하를 바라게 됐다. 미국 노동통계청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가격이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의 미시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부담에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속 가능한 대체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들이 항상 저렴한 가격대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지난 4월 공개한 재활용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로 만든 울트라 부스트 DNA 메이드 투 비 리메이드(Ultraboost DNA Made to Be Remade) 스니커즈는 시장에서 210달

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콜 한(Cole Haan)에서 2월에 공개한 제너레이션 제로그랜드 II(Generation Zero grand II)는 130달러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 풋웨어는 특히 출원 중인 플라워 폼(민들레 소재 고무가 최소 25% 사용된 경량의 소재)의 폼을 적용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다.

이와는 반대로, 포에버21이나 세인 같은 패스트패션 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주력하고 있지 않지만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인은 자체적으로 과잉 생산과 패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과 포장재용 재활용 소재를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주요 패션 산업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러닝화 브랜드 브룩스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크록스도 비슷한 목표를 세고 2030년까지 탄소 중립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비슷한 목표를 세웠다. 그 외,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여러 스포츠 브랜드는 그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두고 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걷기** ... **풋웨어 브랜드가 걷기** 에 주력하는 이유는?



스케처스/남성용 고 워크 워크 아웃 워커 아웃페이스(Skechers/Men's Go Walk Workout Walker Outpace)
남성과 여성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이 레이스업 풋웨어는 탄소 주입 디자인으로 애슬레틱 메쉬와 합성 소재 어퍼가 특징이며, 발전문가가 인증한 탈부착 가능 아치 핏 인솔이 충격을 감소하고 체중 분산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포스/우캔두 샌들(OOFOS/OOcandoo Sandal)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된 우캔두는 우포스의 특허받은 풋베드 디자인이 특징인 단일 형태의 우폼(OOfoam)을 토대로 제작됐다. 이 풋베드는 발의 아치를 감싸서 지탱해주는 기능을 한다. 우캔두는 아웃도어 활동 시 발의 회복을 돕는다.



단스코/우먼스 페니(Dansko/Women's Penni)
단스코의 새로운 기능성 워킹화는 2021년 출시된 페이스(Pace)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 페니는 쉽게 조절 가능한 토클 마감 방식인 번지 레이스 솔루션을 갖췄다. 탈부착 가능한 풋베드는 단스코만의 내추럴 아치 플러스(Natural Arch Plus) 기술을 사용해 아치 지지력이 우수하고 지지력이 좋은 쿠셔닝이 특징이다.



핀컴포트/우먼스 피카디리(Finn Comfort/Women's Piccadilly)
피카디리는 프리미엄 누벅 가죽 어퍼와 전통적인 레이스업 뱀프로 디자인했다. 탈부착 가능한 풋베드는 스웨이드 가죽과 황마, 코리크로 만들었다. 남성용 버전은 탠 색상으로 출시됐다.



셀레로/스테드패스트 워커(Xelero/Steadfast Walker)
셀레로의 로커 스위스 기술은 걸음을 보다 쉽게 만들고 도로 밀압력을 감소해준다. 이 풋웨어는 솔기 없는 안감의 폴그레인 가죽 어퍼와 이중 밀도 폴리우레탄 풋베드가 특징이다. 다양한 너비로 출시됐다.



모션/우먼스 리프(mshn/Women's Leap)
2022년 봄은 파스텔 톤이 어울린 계절이었다. 뒤꿈치에 안정성을 주는 다이내믹 모션 테크놀로지(Dynamic Motion Technology)를 사용한 리프는 착용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토 스프링을 강화했다. PURGrip 트레드는 접지력을 제공하며 스마트니트 어퍼는 얼룩 내성 및 방수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다.



메피스토/우먼스 그웬(Mephisto/Women's Gwenn)
윤이 나는 그웬은 토 부위가 넓은 넓은 바닥과 착화감을 위한 360도 패딩이 특징이다. 보기와 달리 탄력적인 이 신발은 아치와 힐 부위 전반이 견고하여 발을 지탱해준다.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로 여가 및 레저 시간의 걷기 운동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웃도어 활동이 됐다. 그리고 정상화로 돌아오는 지금, 이 같은 트렌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트니스 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95%가 걷기를 일일 피트니스 루틴의 핵심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약 65%는 주당 걷기 운동을 5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웨어러블 스포츠 및 심박률 기술 마케팅인 폴라 일렉트로(Polar Electro)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모든 연령군에서 평균 걷는 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였다. 그리고 "걷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현대적인 활동 포맷"이라고 폴라 일렉트로의 라이자 라우카넨(Raija Laukkanen) 과학 협력 디렉터는 강조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풋웨어 브랜드들이 모든 연령대의 걷기 운동 애호가를 대상으로 삼고 그에 맞게 디자인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학적 변화

전통적인 걷기 인구학에서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가?
"한때 워킹화는 틈새 시장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걷기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활동이 됐다. 체육관이나 요가 강습장에서 가정이나 직장, 학교로 활동 반경이 바뀌면서 보다 편안한 풋웨어를 찾는 젊은 소비자가 늘고 있다."
캐시 카탈리스(Kathy Kartalis), 스케처스 글로벌 상품 SVP
"걷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대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웃도어 활동을 헬스센터에서 하는 운동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걷기는 연령, 장소, 피트니스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완벽한 활동이다."
"티스 다한(Tiss Dahan), 단스코 마케팅 VP
"걷기 범주 내에서 인구학은 점차 확장되어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화되면서,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일일 루틴에 걷기를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루 최소 10~15분 걷기 운동으로 전반적인 피트니스와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랭크 카마라타(Frank Cammarata),

인조이아 그룹 CEO 겸 창업자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쉽게 접근 가능한 운동 형태이자 긍정적인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걷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론적 건강과 행복이 중요해지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운동 형태가 주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런 브라운(Darren Brown), 우포스 마케팅 헤드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게 트레드밀은 대중적인 운동기구가 됐다. 트레드밀의 경사를 12로, 속도는 3mph로 설정한 다음 30분간 격렬하게 운동할 수 있다."
댄 웨러마이어(Dan Werremeyer), 인스트라이드 슈즈(셀레로) 회장
"최근 사람들은 정신 및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이 덕분에 걷기 운동은 모멘텀을 얻게 됐으며 간편한 일상 운동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켈리 덤프슨(Kelly Dumpson), 사스 소매 사업부 헤드
"먼저, 걷기는 1990년대 몰 워커(mall walker, 운동 삼아 쇼핑을 돌러보는 사람)보다 젊은 세대가 포용하고 있다. 지난 20개월 동안 해외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걷기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다."
러스티 홀(Rusty Hall), 메피스토 회장
"건강과 행복은 여전히 하나의 트렌드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쿠셔닝과 지지력을 제공하는 워킹화를 찾게 됐

다."
맷 디하우스(Matt Dieckhaus), 래티튜드(모션) 영업 및 마케팅 VP
"최근 들어 걷기가 미국인의 넘버원 운동이 됐지만, 락다운 기간 동안 걷기에 빠져든 사람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걷기 운동은 신체와 자금 사정에 영향을 적게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건 골드(Megan Gold), 알레그리아 디자인 디렉터
"걷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구매 동향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당사의 핵심 인구통계학은 55~65세 연령대이지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캐롤린 게이(Carolin Gey), 조이아 슈즈 USA CEO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웃도어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족 단위도 늘고 있다."
에릭 버뱅크(Erik Burbank), 킨 이펙트 VP
"모든 인구통계학 전반에서 걷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젊은 소비자층이 급증하고 있다. 걷기는 단순성과 접근가능성 때문에 건강을 위한 뛰어난 분출구가 됐다. 그리고 현재 뛰어난 피트니스 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크리스 코헨(Chris Cohen), 호카 미국 시장 VP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망그랑 리본 까라와치 루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2021년 일본 신발 공급은 전년비 4.0% 증가한 5억 7800만 켈레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대비 82.8% 수준으로

전일본신발단체협의회(전신협)는 매년 <일본의 신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1년1~12월 일본의 신발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일본 시장의 신발 공급은 COVID-19의 확대 영향으로 전년비 1억 3000만 켈레 이상 줄어든 2020년에 비하면 약 2200만 켈레가 늘어났지만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이 비하면 82.8%로 회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2년 연속 5억대에 그쳤다. 이 통계는 전신협의 회원인 각 단체와 경제산업성, 재무성 통계를 참고로 정리한 것으로 일본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발 및 일본 시장이 수입하고 있는 신발을 합친 ‘일본의 신발 공급’의 전체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단 수입될 때의 신발 분류가 소재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늘어난 스포츠 슈즈(스니커)가 가죽 신발이나 천 신발, 케미컬 슈즈에 포함되는 등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또 총 공급량의 약 절반을 ‘기타’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슬리퍼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品名	2021年(推定)				2020年(推定)				2019年(推定)			
	生産	輸入	合計	輸出	生産	輸入	合計	輸出	生産	輸入	合計	輸出
靴類	12,171	26,292	38,463	1,791	10,821	26,212	37,033	1,122	9,809	28,612	38,421	1,493
靴類	1,008	46,221	47,229	853	1,316	28,204	29,520	708	1,305	46,210	47,515	1,009
靴類	409	18,436	18,845	800	293	17,749	18,042	778	296	28,226	28,522	772
靴類	10,720	-	10,720	-	8,212	-	8,212	-	8,208	-	8,208	-
靴類	13,288	130,276	143,564	1,341	10,212	108,472	118,684	1,120	105,896	112,201	117,401	1,121
靴類	8,487	46,817	55,304	-	9,700	42,435	52,135	-	9,536	44,782	54,318	-
靴類	-	1,888	1,888	-	1,384	1,384	-	-	1,643	1,643	-	-
靴類	-	382,916	382,916	-	287,943	287,943	-	-	303,236	303,236	-	-
合計	48,034	693,776	741,810	1,436	28,876	529,440	558,316	1,480	51,484	549,284	619,708	1,844

수출 6.7% 감소, 수입 4.7% 증가
일본의 신발 통계에 따르면 2021년(1~12월)에 일본 시장에 공급된 신발의 총 수량은 전년비 4.0% 증가한 5억 7876만 켈레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감한 2020년보다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감소 경향을 보였던 생산(포함 수출)은 전년비 22.0% 감소로 크게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해 더 감소해 전년비 6.7% 감소한 3346만 켈레다. 가죽 신발이 전년비 9.7% 감소, 케미컬 슈즈가 전년비 17.4% 감소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2019년에 6억 5000만대였던 수입은 2020년에 20.2% 감소한 5억 2000만대로 감소했지만 2021년은 4.7% 증가에 그쳐 5억 4000만대였다. 수출 감소로 수입 비율은

94.2%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가죽 신발 4.2% 감소, 천 신발류 2.0% 증가**
품종별로 보면 ‘가죽 신발’의 생산(포함 수출)은 전년비 9.7% 감소, 수입도 2.1% 감소가 되어 총 4.2% 감소였다. 2019년에 비해서는 21.1% 감소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수입 비율은 75.1%로 전년보다 1.7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국산 상품의 가치가 올라간 ‘천 신발류’의 생산(포함 수출)은 2020년도 전년비 5.7%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0.3% 증가에 그치는 등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150만대를 유지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비 2.1%의 미세한 증가지만 4000만대로 돌아왔다. 합계로는 2.0% 증가했다. 수출은 2020년에 70만 6000

켈레로 전년비 8.1%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전년비 43.1% 증가한 101만 켈레 증가했다. 수입율은 0.1포인트 증가한 96.4%였다. 천 신발류는 과거 8000만대로 공급되던 시기가 있었다. **총 고무 신발은 두 자릿수 증가로 2000만대**
‘총 고무 신발류’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공급은 생산(포함 수출)은 29만 6000켈레로 전년비 1.0% 증가, 수입이 전년비 14.5% 증가로 합계로는 전년비 14.3% 증가한 2000만 켈레를 넘어서 2019년 공급도 웃돌았다. 인젝션(INJ)제 천 신발 타입과 INJ제 총 고무 신발 타입은 전년비 3.4% 증가한 945만 켈레였다. 일부 일본 생산 제품도 있지만 거의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수입한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작업화의 공급은 주요 수요처인 농업 종사자, 건축 종사자의 고령화와 건축업계의 안전성 중시 시책으로 수요가 줄고 있고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지의 축제(이벤트)가 중지되어 축제용 수요도 줄어 전년비 25.4% 감소했다. 2021년도 전년비 25.2% 감소해 겨우 100만대를 유지한 104만

3000켈레다. 작업화는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0만 켈레 이하로 내려앉았다. **케미컬 슈즈는 생산 감소로 수입 비율이 94%로**
케미컬 슈즈는 스니커 시장 정착으로 인한 부인화 고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2019년에 1300만 켈레였던 생산(포함 수출)은 2020년에 820만 켈레로 감소했다. 2021년도 전년비 17.4% 감소한 680만켈레로 201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비 4.6% 증가한 1억 590만 켈레로 합계로는 전년비 2.9% 증가한 1억 1270만 켈레다. 생산 감소로 수입 비율은 전년비 1.5포인트 상승해 94.0%였다. 마찬가지로 케미컬 샌들도 생산 감소(전년비 4.0% 감소), 수입 증가(전년비 5.5% 증가)했으며 합계로는 전년비 4.3% 증가한 5030만 켈레다. 총 신발 공급량의 52.4%를 차지하는 ‘기타’는 전년비 5.3% 증가한 3억 322만 켈레였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슬리퍼 등이 주류다.

출처: shoespost.jp

놀라운

LED등의 모든것 비교할 수 없는 가격!

LED TUBE T8 18W

Price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

LED STREETLIGHT 90W/120W

Price 120W Rp. 1,500.000

Waterproof Class : IP65

Lumunous Efficiency : 110 lm/W

Power : 120W

CCT : 5700K

LED HIGHBAY 100W/150W

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 IP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

LED DOWNLIGHT 6W/12W/18W

Price 12W Rp. 60.000

Power : 12W

CCT : 6500K

LED FLOODLIGHT 100W/150W/200W

Price 150W Rp. 555.000

Voltase : AC 180 - 260 V

Waterproof Class : IP66

CCT : 6500K

LED FLAT LIGHT 48W 60X60/120X30

Price Rp. 400.000

Size : 60x60 / 120x30

CCT : 6500K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 +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Contact Person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Ex PPN / Jabotabek Price

전세계 첫 출시 콘셉트가 한국에... '나이키 스타일 홍대' 오픈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이키 SNKR 홍대' 매장이 전세계 첫 '나이키 스타일(Nike Style)' 콘셉트 매장으로 리뉴얼 된다. 나이키는 스포츠와 스타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하는 공간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접목된 '나이키 스타일 홍대'를 15일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나이키코리아에 따르면 나이키 스타일 홍대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비자와 나이키 멤버와 관계를 구축하는 스포츠 스타일숍을 지향한다. "매장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는 게 나이키 관계자의 설명이다. 3개층 규모로 구성된 나이키 스타일 홍대는 사이즈, 핏, 성별의 개념을 허물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 쇼핑 기반으로 동선과 인테리어 등이 적용되면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관점으로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네킹, 콘텐츠 스튜디오 등이 구성됐다. 나이키 스타일 매장 내 '나이키 바이 유(Nike By You)'에서는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직접 커스텀 할 수 있다. 제품 수선, 지역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워크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나이키 SNKRS 멤버 전용으로 운영되는 'SNKRS 라운지'도 배치됐다. 스니커즈, 문화, 디자인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허브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나이키 제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거나 국내 아티스트가 페인팅 아트웍을 한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매장 외관에는 소비자나 아티스트가 직접 그린 약 2만개의 나이키 로고 스우시가 디자인됐다. 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원료로 매장 내 가구와 바닥 등이 설계됐다. 나이키코리아 GM 김벌리창 멘데스(Kimberlee Chang Mendes)는 "나이키 스타일 콘셉트 매장을 한국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

어서 기쁘다"라며 "한 차원 높은 리테일 경험으로 스포츠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창의력과 영감을 공유하는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고무신부터 나이키까지... 휴길 오르내리며 많이도 만들었지” [산복빨래방]

산복빨래방을 찾아와 빨래방 식구들과 웃고 떠드는 어머니는 당시 한국 신발산업을 이끌던 ‘여공’이었다. 사진은 현덕순 어머니가 30년 넘게 부업으로 하고 있는 신발 밑창을 들여보내고 있는 모습.



안녕하세요, 산복빨래방입니다. 무려 반세기 전, 산복도로에는 고무 공장에 출근하는 ‘신발쟁이’들로 밤낮 없이 북적였습니다.

빨래방을 찾는 70대 어머니들 중에는 당대 최고의 여공이 여럿입니다. 삼화고무 공장에 다녔던 현덕순(73) 어머니도 그중 한 명입니다.

국제·태화·삼화 등 부산 밀집산복 도로 주민 중 재직자 많아 열 식구 부양한 현덕순 어머니 생계 위해 고무공장 문 두드려 점심시간까지 일 배우는 열정 조장 눈에 띄어 ‘창쟁이’ 활약 나이키·리복 등 브랜드도 제작 여공들의 헌신으로 부산은 당시 전국 신발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부산문화원 제공 ■나이키의 추억 처음에는 바이어(buyer)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바다 건너 귀한 분이 온다고만 들었다. 바로 옆에서 신발창(신발의 바닥이나 안에 대는 고무나 가죽)을 붙이던 언니가 “오늘 공쳤네” 라면서 투덜거릴 때도 고개를 가웃했다. 50년 전, 당시 23세였던 덕순 씨의 궁금중은 금새 풀렸다.

한창 신발이 내려와야 할 컨베이어 벨트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키가 멀대 같이 크고 피부가 허연 외국인 작업장 안에 들어왔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조장도 그날만 큼은 외국인 옆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저것 설명했다.

바이어는 벨트 위 신발을 유심히 보더니 이따금씩 빨간 스티커를 붙였다. 실밥이 조금 튀어나오거나 때가 좀 탔다는 이유만으로 ‘불량’ 딱지를 받은 신발이 늘어갔다. 조장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할 때 쯤 바이어는 영어로 큰 소리를 치더니 떠나버렸다.

뒤이어 조장이 여공들을 집합시켰다. “립만 바를 줄 알았지, 창 하나 제대로 못 붙이느냐” 며 한참 동안 욕을 쏟아냈다. 눈 돌 데가 없어 괜히 죄 없는 신발 옆 나이키 로고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고무공장 그만 둔 뒤로 아직도 ‘나이키’ 를 안 신는다카이. 그때 시달린 기억이 너무 남아가지고, 나 포함해서 30명에서 하루에 신발 800족을 만들어야 했어. 근데 바이어 온다고 컨베이어 벨트 천천히 돌렸제, 불량 딱지 받은 신발은 전부 뜯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제. 평소 800족 만들 시간에 600족 밖에 못 만드는기라. 그러면 그날은 저녁 8시든 9시든 할당량 다 채우기 전까지는 퇴근 못하는기라. 나중 되니까 여공들끼리 ‘그놈의 바이어 좀 오지 마라 캐라’ 했더니까.”

■열 식구 먹여 살린 고무공장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덕순 씨는 20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남편을 따라 진주로 갔지만 워낙 먹고 살 게 없어 막막했다. 그러던 차, 부산에 사는 큰집 식구들이 부산에 오는 게 어떻냐고 권유했다.

그렇게 덕순 씨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 시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편에 몸을 실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부산은 큰 도시니 뭐라도 할 게 있겠지’ 라고 불안함을 애써 달랬다. 세를 낼 돈도 마땅찮아 범천동 ‘산만디’ 에 터를 잡았다.

지금이야 ‘산복도로’ 하면 사람들이 않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휴길이었다. 그렇게 세 명에서 단칸방에 살기 시작했다. 희한하게 식구는 늘어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함께 살게 됐다.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인 남편이 둘째 시숙의 딸 둘을 데리고 왔다. 한 지방 아래 10명 가까운 식구가 복닥복닥 모였다. 덕순 씨가 ‘이거 큰일났다.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고 하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고 생각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고민 끝에 문을 두드린 곳은 바로 ‘고무공장’ 이었다.

당시 부산에는 국제상사·태화고무·삼화고무·동양산업·진양화학 등 규모가 큰 고무공장이 모여있었다. 나이키·리복 같은 해외 브랜드 신발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수출됐다. ‘고무공장이 나라에 돈을 많이 벌여준다’ 고들 했다.

덕순 씨는 가장 가까운 삼화고무를 찾았다. 옛 삼화고무 공장(현재 범천경남아파트 자리)은 집에서 뛰면 5분 만에 갈 수 있을 거리였다. ■ ‘시다’ 부터 ‘창쟁이’ 까지 덕순 씨는 ‘창쟁이’ 로 통했다. 공장 안에는 여러 쟁이가 있었다. 뺨칠(본드칠)을 하는 사람은 뺨쟁이, 대프질(테이프 붙이기)을 하면 대프쟁이라고 불렸다.

“고무공장 그만 둔 뒤로 아직도 ‘나이키’ 를 안 신는다카이. 그때 시달린 기억이 너무 남아가지고, 나 포함해서 30명에서 하루에 신발 800족을 만들어야 했어. 근데 바이어 온다고 컨베이어 벨트 천천히 돌렸제, 불량 딱지 받은 신발은 전부 뜯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제. 평소 800족 만들 시간에 600족 밖에 못 만드는기라. 그러면 그날은 저녁 8시든 9시든 할당량 다 채우기 전까지는 퇴근 못하는기라. 나중 되니까 여공들끼리 ‘그놈의 바이어 좀 오지 마라 캐라’ 했더니까.”

■열 식구 먹여 살린 고무공장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덕순 씨는 20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남편을 따라 진주로 갔지만 워낙 먹고 살 게 없어 막막했다. 그러던 차, 부산에 사는 큰집 식구들이 부산에 오는 게 어떻냐고 권유했다.

그렇게 덕순 씨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 시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편에 몸을 실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부산은 큰 도시니 뭐라도 할 게 있겠지’ 라고 불안함을 애써 달랬다. 세를 낼 돈도 마땅찮아 범천동 ‘산만디’ 에 터를 잡았다.

지금이야 ‘산복도로’ 하면 사람들이

들이 않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휴길이었다. 그렇게 세 명에서 단칸방에 살기 시작했다. 희한하게 식구는 늘어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함께 살게 됐다.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인 남편이 둘째 시숙의 딸 둘을 데리고 왔다. 한 지방 아래 10명 가까운 식구가 복닥복닥 모였다. 덕순 씨가 ‘이거 큰일났다.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고 하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고 생각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고민 끝에 문을 두드린 곳은 바로 ‘고무공장’ 이었다.

당시 부산에는 국제상사·태화고무·삼화고무·동양산업·진양화학 등 규모가 큰 고무공장이 모여있었다. 나이키·리복 같은 해외 브랜드 신발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수출됐다. ‘고무공장이 나라에 돈을 많이 벌여준다’ 고들 했다.

덕순 씨는 가장 가까운 삼화고무를 찾았다. 옛 삼화고무 공장(현재 범천경남아파트 자리)은 집에서 뛰면 5분 만에 갈 수 있을 거리였다. ■ ‘시다’ 부터 ‘창쟁이’ 까지 덕순 씨는 ‘창쟁이’ 로 통했다. 공장 안에는 여러 쟁이가 있었다. 뺨칠(본드칠)을 하는 사람은 뺨쟁이, 대프질(테이프 붙이기)을 하면 대프쟁이라고 불렸다.

지금이야 ‘산복도로’ 하면 사람들이

덕순 씨는 신발창을 붙인다고 해서 창쟁이었다. 이렇게 ‘쟁이’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5~6만 원 월급을 더 받았다.

일반 근로자는 월급이 15만 원 정도였지만 쟁이들은 20만 원을 넘었다. 처음부터 덕순 씨가 창쟁이였던 건 아니다. 갓 공장에 입사했을 때는 ‘시다’ (업무 보조를 뜻하는 속어)라며 신발 끈을 묶거나 신발창을 압축시키는 단순한 업무만했다.

뺨칠(본드칠)과 신발창 붙이기, 대프질(테이프 붙이기) 등 전문적인 기술은 도통 가르쳐 주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덕순 씨는 점심시간만 되면 남들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창 붙이는 기계 앞에서 몰래 연습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니, 눈치 보며 스스로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덕순 씨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본 걸까. 한날은 점심시간에 조장이 숙 오더니 “워합니까” 물었다.

덕순 씨는 짐짓 모른 체하며 “창 붙이는 거 연습하고 있지요” 하며 창을 붙이기 시작했다. 천만다행으로 신발에 창이 잘 붙었다. 그때부터 덕순 씨는 ‘창쟁이’ 가 됐다.

■업 그리고 정 매달 10일은 덕순 씨에게 가장 기다려진 날이다. 남편과 월급을 보태서 쌀 한 가마(약 80kg), 보리쌀 10되(약 16kg), 연탄 100장을 사고 집에 들어갈 때면 그야말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월급날 공장 입구는 시골 오일장 저리 가라였지. 교통부(현재 범곡사거리)에는 과일, 찹쌀, 떡볶이 파는 장사꾼부터 술값 외상 돌려받으려고 진을 친 식당 주인들로 북적북적했어. 주말에는 쇼 보러 보림극장에 온 젊은이들도 많았지. 당시엔 거기서 버스 타면 해운대건 서면이건 어디든 갈 수 있어서 교통 편하다고 교통부라고 불렀거든.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막걸리

까지 사가지고 가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덕순 씨는 아직도 산복도로 골목마다 사람으로 북적이던 그 시절이 생생하다. 워낙 고무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비교적 공장과 가까운 산복도로에는 남아나는 방이 없었다.

집주인들은 ‘애 있으면 시끄럽다’ ‘가족 몇 명이상이면 안 받는다’ 는 식의 배짱 장사를 할 정도였다.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침마다 통근버스는 공나물시루나 다름 없었다. 덕순 씨는 일을 시작한 지 약 5년 뒤 살림을 도맡게 되면서 고무공장을 그만뒀다.

살림을 맡아 주던 시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고무공장이 외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더니, 진짜로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사라진 고무공장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고즈넉한 산복도로 골목을 바라볼 때면 예전 북적이던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던 때가 싱기루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덕순 씨는 여전히 산복도로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또 너무 깊은 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공장 다닐 때는 10명 가까운 식구 먹여살리며 ‘내 업이다’ 하며 버텼지. 근데 공장 나온 뒤에도 어찌 하다 보니 마을에서 같이 밤도 까고, 쓰레빠(슬리퍼) 깔창 붙이고 살면서 정이 붙어버렸어. 지금은 살만해졌는데도 여기가 좋아. 아마 앞으로도 여기서 쪽 살지 싶어.”

오늘날 부산과 대한민국을 잇게 만든 신발 기업들의 성공 신화. 그 속에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업’이라 생각하고 버텨낸 여공들의 위대한 삶이 스며있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들의 피땀은 사라지지 않고, 환한 미소가 되어 산복도로 어귀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부산일보]

한국건강원



Bawang Merah
빨간양파즙 최고의 건강 선물
Rp. 600,000 60팩/Box

양파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건강선물!!!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는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억제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지방 함량이 적고 채소로서는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시 복용하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삼주 (선물용)

개소주 흑염소 생사탕 자라탕 녹용탕 장어즙 붕어즙 십전대보탕 킹코부라탕 빨강양파즙 포도즙 사과즙 양배추 배도라지 호박즙 비아그라 씨알라스 웅담 저담 사담 여주즙

이슬브 증류액



BULROGEON

고려인삼



Root of Life Korean Ginseng

전 제품 BPOM, HALAL 등 현지 유통법규를 준수하여 수입, 통관된 우수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고려홍삼 농축액 시리즈 전 제품 특별할인 판매 실시
(2021년 10월 1일부터 / 전 제품 쇼핑백을 함께 증정합니다)



홍삼농축액 플러스
30g (Rp 380,000)
240g (Rp 1,980,000)



홍삼농축액
120g (Rp 980,000)
240g (Rp 1,800,000)



홍삼정
240g (Rp 880,000)



에브리데이 신제품
스티형 고려홍삼 농축액
(자이리콜라 비타민C 첨가)



에브리모닝
스티형 고려홍삼 농축액

홍삼캔 (뿌리삼) Korean Red Ginseng
홍정원 Hong Jung Won
사포니엑스 Saponiex
지맥스롱 G-MaxLong
고려인삼차 Korean Ginseng Tea
고려홍삼차 Korean Red Ginseng Tea
고려홍삼정차 Korean Red Ginseng Tea
지드링크 G-Drink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Business Instruction

01. A/S & Spare parts

- One-stop Service 체제 가동
- 각종 재봉기 및 자수기 부품 판매

02. Sewing Machine

- 신발 현장에 최적화된 재봉기 판매
- 현장 합작 특수 재봉기 개발 및 판매

03. Embroidery Machine

- 현장에 맞는 다양한 HEAD 자수기 개발 및 판매
- 신개발 원단에 최적화된 특수 자수기 및 옵션 장치 개발 및 판매



04. Special Machine

- 생산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 생산 현장의 슬립화를 위한 다공정 가능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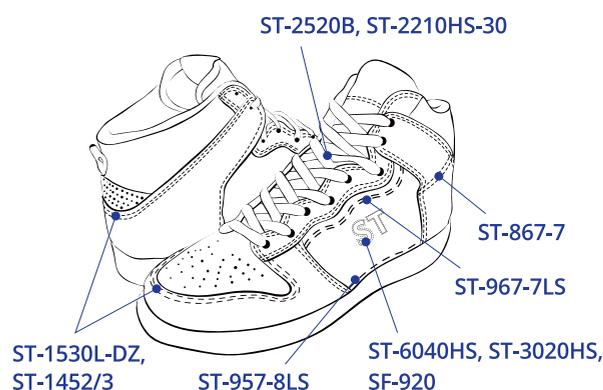
05. Automation Device

- 다양한 Automation Device 개발로 생산 효율성 증대

06. IoT System & Device

- IoT DEVICE 및 SYSTEM 개발로 생산 현장의 빅데이터 생성 및 저장. OEE, KPI 등 각종 데이터 산출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판매

APPLICATIONS



NEW PRODUCTS



2-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2, ST-6040HS-C2



3-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3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666H, ST-777H



신발 생산 전용 자수기
SFT-10616



KOREA HQ
(SunTech Co.,Ltd)
- Headquarter
- R&D Center
- Factory

CHINA Corporation
- Shenzhen Factory

VIETNAM Corporation
CHI NHANH CONG TY TNHH
CORING VINA
- HANOI Branch
- HOCHIMINH Branch

INDONESIA Corporation
(PT.WORLD PRIME INDONESIA)
- CIKARANG Branch
- JEPARA Branch

CIKAK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62-811-179-2248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91-7520-288
+62-811-911-2284 (Local)